

북구, 10회 연속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서 10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유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안전부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4개 평가그룹(시, 도, 시군, 자치구)으로 나누어 ▲지난

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지난해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실적을 점검해 최우수 21개, 우수 44개 등 총 6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의 지난해 신속 집행 대상 예산현액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조 1천 723억 원으로 북구는 예산현액 대비 91.92%에 해당되는 1조 776억 원을 지출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부문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실적 부문은 목표액 908억 원 대비 288억 원을 초과 집행해 재정 집행률 131.72%를 달성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8%에 주어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포상금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도 재정 집행 목표 달성에 역량을 총집중해 재정 집행 혜택이 지역주민과 민생경제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서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10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게 돼 재정 집행 분야에 있어 전국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김재섭 기자

남구, '우리동네 희망 배움터' 운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단위별로 우리동네 희망 배움터를 운영한다.

남구는 "마을 생활권 단위의 주민 밀착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배움을 통해 주민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별 행복학습센터 12곳을 운영한다"며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하반기 25개 강좌에 대한 참가자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희망 배움터는 거점 센터인 남구 평생학습관을 포함해 양림동과 방림2동, 봉선1·2동, 사직동, 월산4동, 백운1·2동, 주월2동, 효덕동, 대촌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을커뮤니티센터 등 12곳에 동지를 두고 있다.

마을 단위별 배움터 이름은 펭귄마을 행복학습센터처럼 펭귄마을과 뽕뽕다리, 부엉이 안심마을 등 각 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상징적인 단어와 행복학습센터 결합으로 명명했다.

관내 행복학습센터 12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상반기 20개 강좌와 하반기 5개 강좌이다. 포크댄스와 라인댄스, 레크리에이션을 망라한 포라레 댄스를 비롯해 지구를 위한 유별난 학교, 전통혼례, 주민 어울림 광장 체조, 요리로 떠나는 세계여행, 우쿨렐레 등 다채롭다.

모집 인원은 평균 10여명으로, 강좌별로는 평균 10여명이다. 또 수강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참가자 부담이 있다.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는 4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하반기 모집은 오는 5월 2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동네 희망 배움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체육과(062-607-2434, 2439)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배움이라는 매개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주민들끼리 교류와 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태 기자

서구, 보행등 추가 설치

광주 서구(서구청장 김이강)가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걷기 좋은 길 보행등 설치사업'을 완료했다.

서구는 야간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풍암동 생활체육공원과 상무1동 5·18기념공원 일원에 보행등 225개를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올해 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은 풍암중학교 일원과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7천500만원을 들여 179개의 보행등을 설치했다.

서구는 앞으로 전기안전사고 방지 등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광주시 보조금 1억6천만원 등을 활용해 절연 불량 등 노후 가로등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도심 내 주요 보행구간 밝기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내실 있는 보행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꾸준한 가로등 시설 점검 및 LED 교체 등을 통해 야간 밝기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도로조명 유지관리 1위에 선정됐다. /이가영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와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인접한 양 지자체 간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서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와 화순군은 최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지자체 상호 간 우호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동구청 제공

'동구-화순군 공동 발전' 첫 발걸음 내디뎈

광주 동구(청장 임택)와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인접한 양 지자체 간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서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구와 화순군은 최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지자체 상호 간 우호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오랜 기간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경제를 공유해 온 역사를 바탕으로 생활 인구 확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동구 11개 부서와 화순군 9개 부서 관계자들은 양 지자체가 발굴한 제안 과제에 대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과제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역축제를 통한 상호 관광 홍보 ▲청소년 교류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공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너릿재 옛길 건강 산책로 조성 등이다.

동구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양측 실무 부서 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공동과제를 확정하고 협약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광산구-사하 공화국, 교류 협력 논의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스타니슬라브 지르코프 국립의료원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러시아 민간 교류협력기구 '코리아 소사이어티(이사장 이규환)'를 통해 마련됐다. 러시아 극동 북부에 위치한 사하 공화국은 310만㎢로 러시아 83개 연방 주체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99만 명으로, 2개 시와 34개 군이 속해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산구와의 국제교류를 협의하고자 구청을 방문한 대표단은 사하 공화국 34개 군 중 하나인 한갈라스울루스의 올렉 V. 이리네예프 주지사 친서를 박병규 청장에게 전달했다.

한갈라스울루스는 한국과 7년 넘

게 문화, 교육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온 곳으로 '한국문화센터'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박 청장이 받은 친서에는 광산구와 문화, 예술, 교육 및 청소년 교류 분야 협력을 제안하고 멀지 않은 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도시의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타니슬라브 지르코프 국립의료원장은 "사하공화국 내 여러 환자들을 위한 선진 교류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공정과 상식